

인디언들의 언어에는 잡초라는 말이 없대요.  
 그들은 모든 것이 존재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답니다.  
 살다 보면 유난히 ‘내가 잡초 같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는 거 같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 된 기분...  
 그럴 때 인디언들의 생각을 떠올려보면 어떨까요?  
 그들의 기준에서 본다면 세상에 존재 이유 없이  
 태어난 생명은 없을 테니까요.

김이나 ‘나를 숨 쉬게 하는 보통의 언어들’ 중

어깨를 펴세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꽃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6:30/새번역)

 전주동부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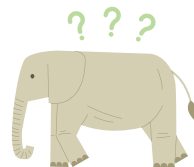
# 동넙

동넙은 전주동부교회가 이웃들을 향해 보내는 사랑의 편지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에스겔 43:2)



## 코끼리는 어떻게 생겼을까



김 종 철 전주동부교회 담임목사



옛날 인도의 어떤 왕이 진리에 대해 말하다가 신하를 시켜 코끼리 한 마리를 데려오라고 했다. 그리고는 장님 여섯 명을 불러 손으로 코끼리를 만져 보고 각기 자기가

알고 있는 코끼리에 대해 말해 보라고 했다.

제일 먼저 코끼리의 이빨(상아)을 만진 장님이 답했다. “폐하, 코끼리는 무같이 생긴 동물입니다.” 다음에는 코끼리의 귀를 만졌던 장님이 말했다. “아닙니다, 폐하. 코끼리는 곡식을 까불 때 사용하는 키같이 생겼습니다.” 그러자 코끼리의 다리를 만진 장님이 나서며 큰 소리로 말했다. “둘 다 틀렸습니다. 제가 보기에 코끼리는 마치 커다란 절굿공이 같이 생긴 동물입니다.” 나머지 장님들도 제각각이었다. 왕은 서로 다투며 떠드는 장님들을 물러가게 하고 신하들을 불렀다. “보아라, 코끼리는 하나이거늘, 저 여섯 장님은 제각기 자기가 만져본 것만으로 코끼리를 안다고 하면서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는구나. 진리를 아는 것 또한 이와 같으리라.”

위 이야기에서 나온 말이 맹인모상(盲人摸象), 즉 ‘눈먼 장님이 코끼리 만지기’입니다. 어떤 사물의 한 형상이나 한 단면만을 보고 전체를 아는 것처럼 하는 태도를 꼬집는 고사성어입니다. 참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널리 두루 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물이나 현상에 대한 참된 지식과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것을 만든 사람과 그것에 대한 설명서를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장님 코끼리 만지기와 같이 자신이 경험하고 만져 본 만큼만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지식 역시 소중하지만 온전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왕으로 알려진 솔로몬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잠언 1:7) 창조자를 알아야 인간과 세상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창조자께서 인간과 세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설명해 주신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크게 두 가지를 알려줍니다. 첫 번째로, 성경은 예수를 믿는 자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알려줍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디모데후서 3:15)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정보라든지, 건강할 수 있는 지식을 얻을 수 있다면 우리는 시간과 돈을 아끼지 않고 그것을 얻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돈과 건강보다 훨씬 중요한 우리의 생명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인간을 더욱 인간답게 만들어 줍니다. 창조주께서는 인간에게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만약 인간이 부도덕하고 타락한다면 세상은 엉망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세상이 더욱 아름답게 선하게 되려면 인간이 반드시 창조주가 주신 선한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 선한 능력을 갖추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디모데후서 3:16~17)

여러분! 인간과 세상에 대해 내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며, 아직 모르는 것이 많다는 것을 깨닫고 이 세상과 인간을 만드신 분의 말씀인 성경을 읽어 보시길 권합니다. 가까운 교회로 가서서 성경 안에 나타난 구원의 소식과 참된 인간이 되는 방법을 알아 가시길 바랍니다.

## 서문 바깥 어머니교회

복음을 들고 전주를 처음 찾아 온 이들은 미국인 선교사들이었다. 첫 공식 장로교 선교사로 입국한 언더우드는 한국에서 사역한 지 7년 만인 1891년에 안식년을 맞는다. 그가 미국으로 귀국하여 시카고 맥코믹신학교에서 선교강연을 했을 때, 깊은 감동을 받은 신학생들이 있었다. 테이트, 레이놀즈, 전킨 등이 그 주인공이다.

여기에 테이트의 여동생 매티, 레이놀즈의 아내 팻시 볼링, 전킨의 아내 매리 레이번, 그리고 독신여성 리니 데이비스 등 4명의 여성이 동참해 '7인 선발대'로 불리는 선교팀이 구성된다. 이들은 미국남장로교 외지선교회의 파송을 받아 1892년 11월 한국 땅을 밟는다.

한국에 주재하는 여러 선교부의 협정에 따라 미국남장로교 선교사들은 전라도를 사역지로 삼게 된다. 그리하여 1893년 2월 레이놀즈의 조사와 어학선생 역할을 맡던 정해원이 먼저 전주로 찾아와 전주천 건너편 은송리에 선교사들의 거처를 마련한다. 이렇게 마련된 거점을 발판삼아 교회와 학교와 병원이 잇달아 세워진다.

은송리에 세워졌던 첫 예배당은 훗날 전주 서문 바깥으로 옮겨졌고, 그리하여 전주의 첫 교회는 서문밖교회(西門外教會)라는 이름을 갖는다. 바로 오늘날의 전주서문교회이다. 1896년 설립된 전주서문교회는 호남의 어머니교회로서 많은 역할을 한다. 덕택에 많은 교회들이 전주서문교회로부터 분립하거나 개척하는 방식으로 일어날 수 있었다.

남문교회를 시작으로 완산교회, 남강교회, 중앙교회 등이 차례로 세워졌고, 전주서문교회가 40주년을 맞이한 1933년에 드디어 전주동부교회가 설립된다. 그해 10월 2일 전주서문교회 당회가 소집되어 전주동부교회 분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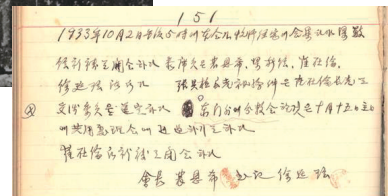
의 문제를 공동의회에 상정하기로 결정한다.

이후의 상황은 <전주서문교회 100년사>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있다. “1933년 10월 15일에 전주 서문 밖에 사는 최순집 집사 가정을 위시하여 그 구역의 최경렬 씨 등 여러 교인들로 동부교회를 설립할 것을 공동의회에서 결의하였다. 1934년 5월 15일에 열린 제28회 전북노회에 교회 분립을 청원하였고 노회에서는 이를 허락하였다. 동부교회의 치리권은 보이엘 목사에게 맡겼다.”

ㅣ 정재영 기자



▶ 전주서문교회의 출발점인 은송리 예배당. 건물 앞에 서있는 인물이 '7인의 선발대' 중 한 사람인 테이트 선교사이다.



▲ 전주서문교회 당회가 전주동부교회 분립 문제를 논의한 1933년 10월의 기록.



헬스케어크레임스엔드멘내지먼트(주)  
주식회사 헬스케어크레임스

대표/의학박사 **하 기 찬** 집사 | 임선영 권사

TEL. 063) 212-8284 FAX. 063) 276-8287

Mobile. 010-5127-8366 E-mail. omphalos9121@hanmail.net

Homepage. www.hfoodcro.com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정여립로 1115, 506호

# 사내 커플에서 인생 반려자로, 그리고 신앙동역자로

만난 이 **한준석·백은순** 부부

방학이 길었다. 일부러 교회와 거리를 두려고 한 건 아니었다. 가족들은 이미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중이었고, 예배 시간에 맞춰 아내와 딸들을 데려다주느라 교회 마당은 매 주일 수 없이 밟았지만, 좀체 마지막 문턱을 넘어가기가 힘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막내딸 채림이 말했다. “아빠, 이제 교회 같이 다녀요!” 이상하게도 망설임 없이 답이 나왔다. “그래, 그렇게 하자.” 이처럼 쉬을 줄 몰랐다. 바로 다음 주부터 예배에 꾸준히 참석했고, 돌이켜보니 어느새 집사가 돼 있었다. 한준석 집사의 방학은 그렇게 끝이 났다.

한준석 집사와 백은순 권사가 한 가정을 이룬 것은 35년 전의 일이다. 같은 직장을 다니다가 서로에게 생긴 호감이 사랑으로 발전했다. 사내 커플로 3년을 지내고 나니 단순히 동료로서만 아니라 평생 반려자로 삼아도 되겠다 싶을 만큼 충분히 신뢰가 깊어졌다. 두 사람 모두 어려서 주일학교를 다닌 경험이 있었지만, 사춘기를 지나면서 겪은 신앙적 방황이 좀 오래갔다. 결혼은 그 방황을 끝내는 계기가 됐다. 먼저 교회로 돌아온 건 백 권사였다.

“시누이의 도움이 컸어요. 어찌나 정성스럽게 신앙생활을 권유하는지, 결국에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나란히 전주동부교회에 다니게 됐어요. 이후 세 딸이 차례로 저를 따라 교회에 나왔고, 혼자만 빠져서 온 가족의 기도 제목이 된 남편이 맨 마지막으로 합류하게 된 것이죠.”

물론 한 집사에게도 나름 이유는 있었다. 결혼과 동시에 건축을 전문으로 하는 세원산업을 창업하여 경영하며, 대가족과 여러 직원들을 먹여 살리느라 온갖 몸고생 마음고생에 시달렸다. IMF 사태가 지났나 싶으면 지독한 경제 불황이 찾아왔고, 또 조금 숨을 돌리려 하니 코로나19가 창궐했다.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던 세월이었다.

“그런데 막상 정식으로 교회에 발을 들여놓으니 마음이 정말 편안한 거예요. 예배 시작 전에 귤전을 울리는 음악부



터 저를 사로잡았으니까요. 심신이 힘들 때마다 의지하고 힘을 얻을 데가 가까이 있었다는 사실을 진작 깨달아야 했는데... 그래서 이제는 제가 먼저 만나는 사람들마다 어서 교회에 나와 평안을 얻으시라고 부지런히 권하고 있어요.”

한편 방학을 일찍 끝낸 백 권사는 오랫동안 주일학교 교사로, 찬양대원으로 열심히 헌신했다. 특히 유초등부 교사로 17년간이나 섬기며, 서른 살 미만의 전주동부교회 청년들 대부분을 길러낸 셈이 됐다. 살롱찬양대원으로서 경력 또한 그만큼 오래됐다. 지금은 활동이 중단됐지만 에스더중창단으로 적극 사역하며 단장까지 지냈고, 예수병원 자원봉사팀에서도 활약했다.

한 집사는 아직 신앙경력이 짧은 만큼 성경공부와 기도생활을 중심으로 믿음의 기초를 쌓는 데 주력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도 신도관리위원회 멤버로 힘을 보태는 중이고, 생업에서 체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정비가 필요한 교회 시설 이곳저곳을 소리소문없이 손보는 역할도 한다.

“주일이면 교우들끼리 진심으로 반겨주고, 따뜻하고 친절하게 서로를 대하는 모습들이 참 좋아요. 오랜 역사를 가진 교회이다 보니 3~4대가 나란히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도 정겹고요. 우리 가족도 것처럼 전주동부교회에 깊이 뿌리 내리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생활 못지않게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데도 부지런해야 한다는 것이 부부의 지론이다. 멀리 충주에 살며 맞벌이하는 큰딸의 가사와 육아를 돕느라 갑자기 주말부부 신세가 되긴 했지만, 그래서인지 오히려 아내에게 신혼 때 같은 설렘을 느낀다며 남편은 씩스러운 웃음을 짓는다.

“가족들 모두가, 그리고 온 교회가 감사 충만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주일학교가 더욱 부흥하여 교회의 미래가 밝아질 수 있도록, 나라 경제가 어서 회복되어 사람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 이현미 기자

## 하나님의 크신 일을 기대하라!

2024 하반기 부흥성회



하반기 부흥성회가 분당우리교회에서 시무하는 이찬수 목사를 강사로 은혜 중에 진행됐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주제로 7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이어진 이번 부흥성회에는 많은 성도들이 참석해, 성령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의 단비로 심령을 흠뻑 적시었다.

특히 마지막 집회에서 이찬수 목사는 청중들을 향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 도전하는 인생, 기도하는 인생, 실

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을 제시했다. 또한 매시간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성도 개개인은 물론 전주동부교회 공동체 전체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부흥의 꿈을 품게 해 준 이번 부흥성회의 기억이 앞으로도 오랫동안 커다란 영적 동력으로 작용하기를 소망한다. | 이승은 기자

## 지구도 살리고 선교현장도 도와요

제1회 동부 프리마켓 열려



6월 9일 주일예배 후 분당 지하 엘리홀에서 신도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제1회 동부 프리마켓이 열렸다.

환경을 위한 아나바다운동 동참과 해외선교 사역 후원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겸하여 열린 이번 행사에는 성도들이 내놓은 의류, 신발, 가방, 생활가전, 주방용품, 유모차, 이불 등 600개 점의 기증품과 재활용품 등을 깔끔하게 단장

하여 판매하고 성금을 모금했다.

또한 수집된 의류 중 겨울옷들은 최모세 선교사(C국)에게 보내고, 여름옷들은 올해 10월 단기선교가 예정된 캄보디아에 보내 선교현장의 주민들과 나누고 섬기는 일에 사용할 예정이다. 기타 물품들도 잘 정리하고 처분하여 선교 기금에 보태기로 했다. | 정소연 기자

2024 전주동부교회 교외학교 여름행사

| 영유아부                      | 유치부                       | 유초등부              | 중고등부           | 청년부            |
|---------------------------|---------------------------|-------------------|----------------|----------------|
| "최고의 코치 예수님" (벧전 2:9)     |                           |                   |                |                |
| 일시 7.14(토) 7.21(토)~22(주일) | 일시 7.14(토) 7.21(토)~22(주일) | 일시 7.26(금)~28(주일) | 일시 8.1(목)~3(토) | 일시 8.5(월)~7(수) |
| 장소 영유아부실(교육관1층)           | 장소 유치부실(본당 지하)            | 장소 유초등부실(교육관2층)   | 장소 목원대(중남 대전)  | 장소 경일대(경북 경산)  |
| "내가 네 길을 인도하리라" (수 1:9)   |                           |                   |                |                |
| "이렇게 기도하라!" (마 6:9~10)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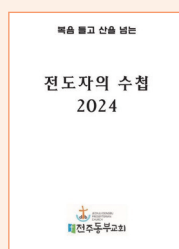
전주동부교회

## 영혼구원 사역에 동반자 등장

<전도자의 수첩> 발간

올 가을 예정된 새생명축제를 앞두고 성도들의 전도사역에 안내자 역할을 할 <전도자의 수첩 2024>가 발간됐다.

각자가 품을 태신자 명단, 복음 제시방법, 교회 소개, 전도설교, 전도성구 등으로 구성된 <전도자의 수첩>이 하나님나라 확장에 훌륭한 도구로 사용될 것을 기대한다. | 윤미영 기자





## '성령 충만'이란 어떤 상태를 말하나요?

독자 여러분이 질문하시면 전주동부교회 부목사님들께서 알기 쉽게 답변해드립니다. 신앙 생활에 관해 궁금한 게 있으시면 동녘 이메일 (dong\_nyeok@naver.com)로 보내주세요.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가다 보면 뜨거웠던 첫 사랑은 어느 순간 사라지고 권태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참고로 권태기란 어떤 일이나 상태에 시들해져서 생기는 게으름이나 싫증입니다. 이때 권태기를 극복하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헤어짐입니다.

**Q** 삼위일체 교리에 따르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중에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 조금 쉽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성령 충만'이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인지도 알려주세요.

**A**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사랑의 우체부입니다.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계시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데요. 예수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드러난 하나님의 실질적인 사랑이 우리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이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과 뜨거운 연애 혹은 사랑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입니다. 혹시 연애를 해보셨나요? 두 사람이 만나 사랑에 빠져 끊임없이 서로를 갈망하고, 실제로 만나서는 영원토록 함께 할 것처럼 사랑을 나눕니다.

그런데 이를 극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연애의 감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서로 간에 배려와 격려로 어려움을 극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뜨거워진 사랑의 상태를 날마다 유지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는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이란 하나님과의 뜨거운 첫사랑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내 속에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이 떨어진 상태라면, 이는 신앙의 권태기가 찾아온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대목에서 세상 연애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마음은 변함이 없는데, 내가 변하여 세상의 다른 신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신을 찾으려 하는 자신의 죄악된 본성을 극복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뜨거운 사랑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처럼 평생 주님만 사랑하는 '성령 충만'의 상태로 살아갑시다.

| 나종국 목사



## 전주동부교회 영유아부를 자랑합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육아서와 전문가들의 도움을 많이 받지만, 역으로 수많은 정보 사이에서 길을 잃은

듯한 기분을 종종 느끼곤 합니다. 아무리 유명한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봐도 크리스천 부모로서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이 많은데 아이에게 신앙을 심어주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나태해질 때마다 영유아부 예배는 제게 용기를 북돋아 주고, 확신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처음 영유아부 예배에 참석할 때만 해도 제 옆에서 떨어지지 않으려던 주현이는 교역자분들과 선생님들의 열정과 사랑으로 한 주 한 주 성장해, 찬양에 맞춰 율동하기를 좋아하고 기도할 줄 아는 어린이로 자라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성도님들과 아이들이 영유아부에서 제가 느꼈던 사랑을 느끼기를 소망합니다.

| 주현 엄마 박하양 성도

문학

# 일상에서 포착하는 주님의 아름다움을 노래해요



최완주 권사는 수십 년의 교단생활을 마친 후, 2012년 월간 <한국 시(詩)>에서 신인상을 수상하며 늦깎이 시인으로 등단했다. 본격적인 작품 활동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2014년 제25회 한국시문학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하고, 2015년에는 한국생활문학상 작품상을 수상하며 뛰어난 필력을 과시하기도 했다.

가족들에게 남겨주고 싶은 소중한 마음들을 담아낸 2015년 작 <축추는 거문고>(한국시사)에 이어, 2021년에는 예수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위로를 갈망하며 신앙적인 소통을 추구하는 작품들을 모은 <너의 노래가 나의 노래

가 되어>(들꽃)를 발표했다. 사론휴게소를 방문하면, 책꽂이에 비치된 최 권사의 시집을 감상할 수 있다.

최 권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연의 일상적 변화들을 부지런히 들여다보려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포착한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시를 씁니다. 사랑하는 전주동부교회 가족들 그리고 <동녘>의 독자들과도 제가 느끼는 섬세한 감정과 기쁨들을 나누고 싶습니다.”라고 말한다.

아래에 최완주 시인이 <동녘> 독자들을 위해 기고한 시 한 수를 소개한다.  
| 김형열 기자

## 풀꽃의 미소

최 완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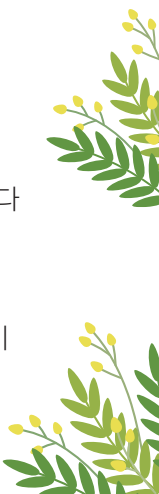
평소 바라보지도 않고 말도 걸지 않는 풀꽃  
햇빛과 바람 만나는 날  
풀꽃은 웃는다

풀꽃이 새글새글 애기처럼 웃는다  
누가 청순한 풀꽃의 미소를 마주 느낄런지  
바람 손잡고 햇빛놀이 하며 기쁨 찾는다

하찮은 풀꽃이라도  
땅속 물길 뿌리길을 잘 찾아가고  
바람길도 알고 햇빛과 즐겁게 이야기도 한다

토끼풀꽃 행운의 네잎클로버  
하얀 민들레 풀꽃 씨앗 퍼뜨리기  
들나팔 풀꽃 웃 줄기에서 또 한송이 꽃 피기

온통 기쁨과 감사와 기도로  
발끝을 곤두 세우고 돌아 서서  
이곳 저곳 풀꽃들과 함께 마음껏 웃어요



## <동녘>을 만드는 사람들

발행인 : 김종철

편집인 : 안효건

제작팀 : 정재영(팀장)

김형열 윤미영 이승은 이현미 정소연 최조경

발행처 : 전주동부교회 전도위원회

전북 전주시 덕진구 권삼덕로 88

전화 (063) 275-7760 홈페이지 www.cjdb.or.kr

### <동녘> 제작을 후원하신 분들

구길수 김금자 김남기 김덕기 김미영 김숙희 김옥순 김은숙  
김장중 김진숙 김효순 노명우 박선규 박영삼 백성연 소화수  
안한성 안효건 오윤자 은경옥 이동주 이복구 이승은 이정숙  
이정희 이준례 이현미 이홍재 인정환 임선영 임순 전봉권  
정소연 정숙자 정재영 진서금 진금자 최근수 최금이 최남열  
최동욱 최범석 최순미 최원진 최조경 하기찬

(가나다순 2024년 7월 7일 현재)

전도편지 <동녘> 제작을 후원하실 분들은 1구좌당 5000  
원씩 아래 계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후원계좌 > 카카오뱅크 3333-29-3293494 이현미

# 당신을 초대합니다

사람은 혼자 태어나지 못합니다.  
세상을 혼자만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을 앞장서 이끌어주고, 평생 동행하며 힘이 되어줄 존재를  
모든 인생이 필요로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가족, 친구, 평생의 동반자가 되어주기 위해  
찾아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에게 진리로 살아가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교회는 그 사랑, 그 진리를 따르는 이들이 모이는 생명공동체입니다.

이 편지를 받은 여러분이 아직도 세상에서 참된 길과 진리와 생명을 발견하지 못하셨다면,  
더 늦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분 안에서 인생의 참 목적을 발견하고, 참 평안을 얻기를 원합니다.



**전주동부교회**는 한국교회 최대 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중전주 노회 소속으로, 1933년 10월 15일에 설립되어 90년 넘는 역사를 가진 교회입니다. 특히 성경의 가르침을 바르게 따르는 공동체로서 정체성과, '학생교회'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다음세대 사역에 전념하여 큰 열매를 거둔 자랑스러운 전통을 지키고 있습니다.

## 예배 및 모임 안내

|       |  |           |  |          |
|-------|--|-----------|--|----------|
| 새벽예배  |  | 매 일 05:00 |  | 본당       |
| 주일 1부 |  | 일요일 09:00 |  | 본당       |
| 주일 2부 |  | 일요일 11:00 |  | 본당       |
| 찬양예배  |  | 일요일 15:00 |  | 본당       |
| 수요예배  |  | 수요일 19:30 |  | 본당       |
| 금요기도회 |  | 금요일 20:30 |  | 본당       |
| 영유아부  |  | 일요일 11:00 |  | 교육관 1층   |
| 유치부   |  | 일요일 11:00 |  | 본당 지하 1층 |
| 유초등부  |  | 일요일 11:00 |  | 교육관 2층   |
| 중고등부  |  | 일요일 09:00 |  | 교육관 3층   |
| 대학청년부 |  | 일요일 13:00 |  | 본당 4층    |
| 부부모임  |  | 일요일 13:00 |  | 지정 장소    |

## 오시는 길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권삼대로 88 063) **275-7760**

<동넵>은 전주동부교회 인터넷 홈페이지([www.cjdb.or.kr](http://www.cjdb.or.kr))와 네이버카페(cafe.naver.com/dongnyeok) 페이스북([www.facebook.com/groups/dongnyeok](https://www.facebook.com/groups/dongnyeok))을 통해서도 구독할 수 있습니다.  
정기구독, 전도대상자 발송, 구독소감, 후원, 이벤트 등의 문의는 네이버카페와 이메일([dong\\_nyeok@naver.com](mailto:dong_nyeok@naver.com))을 통해 하시기 바랍니다.